

보도 일시	2022. 3. 16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3. 16.(수) 10:00
담당 부서	기상청 대변인	책임자	대변인 김희철 (02-2181-0352)
		담당자	사무관 오철규 (02-2181-0355)

제39회 기상기후 사진·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- 도심 속 집중호우 포착한 김주형 씨의 <국지성 호우> 대상 선정 -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3월 16일(수), ‘제39회 기상기후 사진·영상 공모전’ 수상작 40점을 선정해 기상청 누리집(www.kma.go.kr)과 공모전 누리집(www.weather-photo.kr)을 통해 발표했다.
- 이번 공모전에는 총 4,144점의 작품이 참여했으며, 치열한 경쟁 끝에 △사진 부문 37점 △영상 부문 3점 △총 40점의 작품이 선정됐다.
 - 특히,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심사위원 점수(50%)와 국민투표 결과(50%)를 합산해 △대상(1점) △금상(1점) △은상(2점) △동상(3점)의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.
- 대상(환경부 장관상)에는 지난해 8월 서울 도심 일부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는 순간을 담은 <국지성 호우>(김주형)가 선정됐다.
 - 금상은 성산일출봉 근처 차 안에서 번개를 촬영한 <성산일출봉에 구름, 번개>(유수기)가 수상했고, 은상은 김제 벽골제 부근 상공의 회오리 구름 기둥을 포착한 <용오름 현상>(김용천)과 4월 초 봄날 아침에 서리 맞은 꽃의 모습을 담은 <시련 속의 아름다운 할미꽃>(김영곤)이 수상했다.
 - 영상 기록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지난해 신설한 영상 부문 특별상(3점)은 <강풍과 폭설 그리고 그 후>(이종열), <남한강변 물안개>(박영만), <월출산과 운해>(이갑의)가 수상했다.

□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진만 문화방송(MBC) 콘텐츠 제작자(PD)는 “갈수록 커지는 기상과 기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됐습니다.”라며 “쉽게 접하기 힘든 짧은 순간을 미학적으로 담아내고, 날씨가 전하는 감동과 위험 등의 메시지를 잘 표현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진지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.” 라는 소감을 전했다.




□ 이번 수상작들은 기상청의 대전 이전과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,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(3.23.~3.27.)과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(3.23.~4.6.)에서 전시될 예정이다. 다만,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시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.

※ 자세한 행사 일정은 기상청 누리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(SNS), 공모전 누리집 참조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작품들이 날씨와 자연이 빚어낸 조화와 아름다움, 위험기상의 위협적 모습을 생생히 잘 담아내고 있어, 각각 다 뜻깊고 감히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렵습니다.”라며 “이번 공모전에 작품 응모와 국민투표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기상 기후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나가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제39회 기상기후 사진·영상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
2. 제39회 기상기후 사진·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

구분		수량	상훈	상금	성명	작품명
사진 부문	대상	1점	환경부장관상	500만 원	김주형	국지성 호우
	금상	1점	기상청장상	200만 원	유수기	성산일출봉에 구름, 번개
	은상	2점		각 100만 원	김용천	용오름 현상
					김영곤	시련 속의 아름다운 할미꽃
	동상	3점		각 50만 원	노경남	5월의 폭설
					남상우	빙하
					박연서	폭설이 내리던 날 2
입선	30점	-	각 20만 원	김상석 외 29명		
영상 부문	특별상	3점	기상청장상	각 50만 원	이종열	강풍과 폭설 그리고 그 후
					박영만	남한강변 물안개
					이갑의	월출산의 운해
계		총 40점				

작품(상격) / 작품명 / 작가명	작품설명	촬영일 및 장소
 <p>(대상) 국지성 호우 / 김주형 작</p>	<p>(사진)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오후,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서울 도심에 사정없이 비를 쏟아부었다.</p>	<p>2021. 8. 9. 경기도 광주시 (남한산성 서문)</p>
 <p>(금상) 성산일출봉에 구름, 번개 / 유수기 작</p>	<p>(사진) 번개가 칠 수 있다는 예보를 확인하고, 번개 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성산일출봉으로 향했다. 안전을 위해 차 안에서 촬영했다.</p>	<p>2021. 7. 19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</p>
 <p>(은상) 용오름 현상 / 김용천 작</p>	<p>(사진) 비가 내린 후, 김제 벽골제 부근 상공의 검푸른 구름 사이로 회오리 구름 기둥을 발견해 카메라에 담았다.</p>	<p>2021. 9. 3. 전라북도 김제시</p>



(은상) 시련 속의 아름다운 할미꽃 / 김영곤 作

(사진) 4월 초 따뜻한 봄날 이른 아침, 서리가 내린 할미꽃의 시련이 애처롭다. 하지만, 그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은 더없이 감동적이다.

2019. 4. 1.
강원도 정선시



(동상) 5월의 폭설 / 노경남 作

(사진)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오는 5월에 폭설이 내렸다. 새하얀 눈이 먼저 피어있던 진달래와 어우러져 장관을 만들었다.

2021. 5. 21.
강원도 태백시
(태백산)



(동상) 빙하 / 남상우 作

(사진)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의림지가 연이은 한파로 얼어붙은 모습을 드론을 이용해 촬영했다.

2022. 1. 8.
충청북도 제천시



(동상) 폭설이 내리던 날 2 / 박연서 作

(사진) 폭설이 내려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동차를 밀고 있다. 함께 하면 올라갑니다!

2021. 1. 12
서울특별시
관악구

 <p>(특별상) 강풍과 폭설 그리고 그 후 / 이종열 作</p>	<p>(영상) 초속 10m/s를 넘나드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리는 풍경과 폭설이 내린 후의 맑고 청명한 영상을 교차 편집했다.</p>	<p>2022. 2. 15. 전라남도 신안군 (천사대교)</p> <p>2021. 12. 27. 전라북도 군산시 (고군산군도)</p>
 <p>(특별상) 남한강변 물안개 / 박영만 作</p>	<p>(영상) 영하 20도에 가까운 매서운 날,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남한강변의 강물이 순식간에 물안개로 피어올라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어 황홀한 장관을 보였다.</p>	<p>2022. 1. 12. 충청북도 충주시</p>
 <p>(특별상) 월출산과 운해 / 이갑의 作</p>	<p>(영상) 기암괴석 봉우리로 유명한 월출산과 영암 들판의 운해와 일출을 타임랩스로 담았다.</p>	<p>2020. 5. 27. 전라남도 영암군 (월출산 정상)</p>